

## 김이탁 제1차관, 구글 대외협력 부사장 면담

- 24일 구글과 AI 공간정보 및 도시·교통 분야 협력 강화 논의

-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4월 24일(금) 오후 서울(국토발전전시관)에서 크리스 터너(Cris Turner) 구글 대외협력(지식·정보 부문) 부사장과 면담을 갖고 AI 공간정보 및 도시·교통 분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 이번 면담은 지난 2월 구글에 대한 지도 반출 허가 결정 이후, 지도 및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한국과 구글 간 협력 강화 논의를 위해 구글 측의 요청으로 마련됐다.
- 김 차관은 구글이 보유한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토대로 한국 기업과 협력하고, AI·모빌리티 등 분야에서 한국의 산업 성장을 지원하는 상생이 실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특히, 이날 면담에는 공간정보, 도시, 교통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참석하여 AI 지도 서비스, 공공데이터 기반 모빌리티 최적화 및 교통안전 증진, 스마트도시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협력 가능성을 점검했다.
- 이에 크리스 터너 부사장은 지난 2월 지도 반출 허가 결정을 계기로 한국과의 건설적 협력 기회를 갖게 되었다며 감사를 표하고,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와 AI 기술, 지도 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한국의 스마트 인프라 고도화, 교통 최적화 등에 지속적으로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김 차관은 “이번 면담이 구글과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한국 기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며,
  - “구글과 국내 산업계가 기술협력, 해외진출 지원, 투자 확대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담당부서 <총괄>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	책임자	과 장	김태경 (044-201-3258)
		담당자	사무관	김기욱 (044-201-3264)
<도시>	국토도시실 도시경제과	책임자	과 장	김연희 (044-201-4845)
		담당자	사무관	김수빈 (044-201-4847)
<공간정보>	국토도시실 공간정보제도과	책임자	과 장	김태형 (044-201-3478)
		담당자	사무관	김통일 (044-201-3480)
<교통>	교통물류실 교통정책총괄과	책임자	과 장	배석주 (044-201-3804)
		담당자	사무관	류나린 (044-201-3791)